

## 현대약품, 미에로화이바 맛집로드 이벤트 진행

현대약품은 8월14일까지 '미에로화이바 맛집로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미에로화이바 인스타그램에서 함께하는 맛집 리스트를 확인하고, 식당에서 음식과 미에로화이바를 함께 촬영해 SNS 인증을 하면 된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미에로화이바 커스텀 일회용 필름카메라'와 '미에로화이바 음료'를 선물로 증정한다.



##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세 장기화 전망

# “압구정 현대도 3억 ↓ ... 집값 하락 계속되나”

급격한 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 커져 '푹푹한 한 채' 현대아파트도 휘청 지방 아파트값은 오히려 0.14% 올라 하반기 주택가격도 하향 조정 전망



아파트명	최근 거래	작년 거래	낙폭
압구정현대아파트(157.36㎡)	55억 원	58억 원	-3억 원
도곡동 타워팰리스(164.97㎡)	42억5000만 원	43억5000만 원	-1억 원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59.967㎡)	21억4000만 원	22억8500만 원	-1억4500만 원

“푹푹한 한 채”의 대명사로 불렸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매매가(157.36㎡ 기준)가 최근 3억 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매매가까지 하락하며 집값이 장기적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 집값이 6주 연속 하락하고 강남구 집값도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가운데 '부촌의 상징'인 강남구 대표 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도 매매가 하락 사례가 등장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올해 하반기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7차 5층의 전용면적 157.36㎡(47평)가 지난달 9일 중개 거래를 통해 55억 원에 매매 계약이 성사됐다. 이는 5월19일 현대아파트 6차 같은 면적의 역대 최고 매매가(58억 원)보다 3억 원 떨어진 금액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이 강해지며 집값 하락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에도 곳곳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오며 '푹푹한 한 채'의 대명사로 불렸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경기 침체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3주 만에 가격이 3억 원이 떨어지는 보기 드문 사례가 나타났다. 강남 고가 아파트는 주로 현금부자가 거래하기 때문에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전

반적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역시 하방 압력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보합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마지막 주(4일 조사 기준)에 0.01% 떨어지며 4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앞서 또 다른 강남구 랜드마크로 불리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164.97㎡(50평)는 지난달 6일 43억5000만 원(46층)에 팔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나 같은 달 29일 42억 5000만 원(47층)에 거래돼 3주여 만에

1억 원 떨어졌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용 59.967㎡(18평)는 지난해 8월31일 23억 원(12층)에 매매대 신고가를 기록했으나 5월27일 22억 8500만 원(22층), 6월 28일 21억4000만 원(5층)에 각각 팔리며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마지막 주까지 수도권 아파트값이 0.44% 하락한 가운데 경기(-0.55%), 인천(-0.54%), 서울(-0.22%) 순으로 낙폭이 컸다. 특히 지난해 6월 마지막 주까지 20% 넘게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경기의 양(23.63%), 시흥(22.00%), 안산

(20.20%)은 올해 같은 기간 각각 1.40%, 2.71%, 0.04% 떨어지면서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됐다. 올해 수도권에서 낙폭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 화성(-2.80%)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이 0.14% 떨어졌지만, 지방 아파트값은 오히려 0.14% 오른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2.67%), 경남(1.72%), 광주(1.39%), 강원(1.37%), 제주(1.26%) 등은 소폭 상승했고, 세종(-4.56%), 대구(-3.48%), 대전(-1.33%) 등은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한편 11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지방이 6월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직방 애플리케이션 내 접속자 17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9%가 향후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가 63.9%로 가장 많았고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한 수요 감소(15.0%), 물가 상승 부담과 경기 둔화(12.1%),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한시 완화에 따른 매물 증가(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22년 하반기 주택가격은 추가 금리 인상,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등 외부적인 요인이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수 위축도 이어지면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세 가격은 상승과 하락 혼조세 속에 신규 입주 물량에 따라 국지적인 차이를 보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금호타이어 '마제스티9 솔루션 TA91 EV' (왼쪽)와 '크루젠 HP71 EV'. 사진제공 | 금호타이어

## 금호타이어, 전기차 타이어시장 공략 박차 연료 효율·주행성능까지 고려한 제품 선택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전기차용 타이어 '마제스티9 솔루션 TA91 EV'와 '크루젠 HP71 EV'를 출시한다.

전기차용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와 비교해 낮은 회전저항, 저소음, 높은 접지력과 내마모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 최근에는 고성능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며, 핸들링과 같은 드라이빙 퍼포먼스도 중요시되고 있다.

마제스티9 솔루션 TA91 EV와 크루젠 HP71 EV는 전기차 특성에 맞게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주행성능, 승차감까지 고려한 금호타이어 전기차용 타이어다.

승차감 및 제동성능을 높이기 위해 고분산 정밀 실리카가 적용된 EV 최적 컴파운드를 사용하였으며, 일반 제품 대비 마모성능과 제동력 등을 대폭 개선해 주행안정성을 업그레이드시켰다. 또한 타이어 홈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댄플 설계로 분산시키는 '타이어 소음 저감기울'을 적용해 승차감도 개선했다.

원성열 기자

## SKT, 월 5만원대 '5G 중간요금제' 신고서 제출

SK텔레콤이 월 5만 원대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중간요금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의 5G 중간요금제는 월 5만9000원에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5G 요금제는 10~12GB(5만5000원)와 110~150GB(6만9000~7만5000원) 등으로 나뉜다. 5G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량이 월평균 23~27GB라는 점에서 그동안 중간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도 3분기 중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5G 중간요금제 출시 준비를 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 인공관절 재수술 성공 체크 포인트는... “의료진의 풍부한 임상경험·숙련도 중요”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무릎 통증과 보행 장애를 일으켜 중장년층 삶의 질 저하 요인이 된다. 연골 손상이 광범위한 상태라면 기존 관절 일부를 제거한 뒤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해야 한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수술 후 회복 및 재활 기간이 제법 긴 편이다.

중요한 점은 환자마다 무릎 관절뼈 크기, 두께, 병증이 다른 만큼 맞춤형 수술 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관절은 내구성이 존재한다. 인공관절의 수명은 10~15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간에 수술을 받은 환자라면 향후 무릎재수술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공관절 재치환술 대상은 수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무릎관절 통증이 다시 나타나고, 보행이 어려워지는 등 정상적인 인공관절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이다. 첫 수술에 비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체계적인 검진 및 의료진의 풍부한 임상경험, 높은 숙련도가 중요하다. 이미 수술이 진행될 부위에 재차 수술을 시행하는 만큼 뼈의 손상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재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첫 수술처럼 무릎관절 통증 개선 및 정상적인 보행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수명도 첫 수술만큼 오랜 기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재수술 시 뼈의 변형 및 소실, 주변 근육 및 인대의 불균형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매우 많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서울원병원 나영근 원장(정형외과 전문의)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 올 상반기 친환경차 판매 20만대 돌파...현대·기아 열풍 주도

내수 판매량 전년 대비 40.7% 늘어 가장 많이 판매한 브랜드는 '기아' 아이오닉5, 하이브리드 판매량 추월



현대차는 상반기 1만5103대가 판매된 아이오닉5(왼쪽), 기아는 2만3412대 판매된 쏠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 내수 판매를 이끌었다.

사진제공 | 현대차·기아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팔린 친환경차가 20만대를 돌파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완성차 5개사(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자동차·쌍용차)와 수입차(테슬라 제외)의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은 총 20만3721대로, 전년 같은 기간(14만7600대)보다 40.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친환경차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대수다.

친환경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브랜드는 기아다. 8만4659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상반기(4만3천350대)보다 95.3% 증가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6만1467대 판매되며 지난해 상반기(3만4487대)보다 78.2% 증가한 것이 친환경차 판매 증

가를 이끌었다.

하이브리드 판매를 견인한 차종은 쏠렌토다. 2만3412대 판매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1만7689대)보다 32.4% 늘었다. 전기차도 완성차 5개사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만3192대가 판매되며 지난해 상반기(8863대)보다 161.7% 늘었다. 실적을 견인한 차종은 현대차다. 상반기에만 1만2158대가 판매됐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내수 시장에서 전년 동기(5만1086대)보다 31.8% 늘어난 6만7317대를 판매했다. 전기차

판매량(3만1672대)이 처음으로 하이브리드(3만760대) 판매량을 추월하며 뛰어난 전기차 경쟁력을 입증했다. 1만5103대가 판매된 아이오닉 5가 전기차 판매를 이끌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그랜저가 1만1761대로 가장 많이 팔렸다.

반면 한국GM,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자동차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저조했다. 한국GM은 볼트EV와 EUV의 공급이 지연되며 81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942대)보다 91.4% 줄었다. 르노코리아자동차 역시

전기차 트위지와 조예를 합쳐 516대를 판매하는데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653대)보다 21.0% 감소했다. 쌍용차는 상반기 첫 전기차인 코란도 이모션을 출시하며 108대를 판매했다.

수입차 업계에서도 친환경차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다. 상반기 총 5만1121대가 판매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4만9671대)보다 2.9%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가 상반기에만 6294대가 판매되며 지난해 상반기(2666대)보다 136.1% 증가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